

독신 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ousing Design Guidelines for the Single Household

건국대학교 생활과학과
겸임교수 조 명 은**
Dept. of Human Ecology, Konkuk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Cho, Myung-Eun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using preference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o propose guidelines for housing design choices for single people.

One hundred and sixty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is researcher were analyzed utilizing frequencies, percentages, and t-tes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ingle households and non-single households in various aspects of housing preferences.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sired type and size of housing, needed amount of space, and the importance of space itself. Single persons wanted to live in a small apartment, about 83.45m²(25.29 pyung) size. They consider the bathroom and the master bedroom more important than the living room and kitchen. They prefer to have specifically function-oriented rooms such as shower, home office, computer room, exercise room, or leisure space. Single persons consider information-technological facilities within an apartment very important. They would like to adopt automatic and electronic technology in the house, such as optical communication network, automatic air-cleaning system, and internet TV.

Housing preferences differ significantl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age.

I propose in this study, a small-sized, information-, high-tech- and leisure-oriented design that corresponds with the actual housing preferences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 주요어(key words) : 독신가구(single household), 주거선호(housing preference), 디자인 지침(design guidelines)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주택의 형태나 디자인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생활을 반영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독신가구는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비

동거가족(주말부부), 공동체 가족, 노인단독가구 등의 다양한 가구 유형 등과 함께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부부와 미혼 자녀'라는 전형적 가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주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1960년 총가구수의 2.3%에 지나지 않던 1인 가구가 1990년대에는 9%에 이르고, 2000년에는 15.5%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일반가구는 '95년보다 10.4% 늘어난 반면 1인 가구는 '95년보다 35.4%증가하였다(통계청, 2000). 이는 미혼독신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결혼 1백건당 이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조명은 (E-mail : mecho213@hanafos.com)

혼수로 표시하는 이혼율은 1980년 5.8%에서 1995년 16.8%, 2000년 35.9%로 늘어났다(통계청, 2001).

이러한 독신가구의 증가는 주택시장 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건축기술의 발전, 시설의 첨단화, 사회의 정보화 등 산업구조의 발전과 함께 주거생활을 변화시키며 주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및 산업 구조와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인간의 기본적 주거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신가구의 생활과 주거선호를 파악하여 주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며, 독신가구들의 주거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독신가구의 주거선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주택의 공급자에게 독신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합한 독신가구용 주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독신과 독신주거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독신가구의 이해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존 네스빗(John Naisbitt)과 같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바라보며 예측했던 사회적 구조와 생활의 변화 중의 하나가 새로운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최근 들어 변화하는 가족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인구증가를 감소 추세 속에 일반가구 증가율은 10.4%에 그쳤으나, 독신가구 증가율은 35%에 이르고 있다. 독신가구 증가율이 일반가구 증가율의 3배 이상이다.

일반가구에서 독신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0년에는 9% 정도였는데 2000년에는 15.5%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제도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2세대의 전통적인 핵가족 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과 이제 독신가구는 예외적인 가구 형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독신가구 비중이 30% 정도이고, 미국은 일반가구가 50%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신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독신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1인가구가 25.2%(561천가구)로 가장 많지만, 최근 40-49세 연령층의 1인 가구수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 연령층의 1인 가구수는 1999년에 비해 2000년 7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

독신가구의 증가는 지금까지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소비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독신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심을 갖고 독신자들을 위한 각종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독신자들을 위한 온

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싱글족을 겨냥한 콤보형 가전제품, 공간절약형 가구, 주택시장에서도 초소형 주택, 10평 이하의 오피스텔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신가구의 특성은 경제력이 높은 전문직 및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집단으로서, 독신의 유형은 크게 법적적으로는 미혼, 이혼, 사별독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도, 사회, 심리적 독립성, 그리고 독신에 대한 수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독신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성을 기준으로 일시적 독신과 영구적 독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충선, 2002). 일시적 독신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속하며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이 늦어진 경우로 미혼 독신일 확률이 높으며, 언제라도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나면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영구적 독신은 높은 경제적 자립도를 배경으로 결혼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독신의 유형은 같은 독신가구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주거선호 성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주거계획 및 공급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독신 주거

통계청이 '200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전국 주택 보급률은 96.2%로 이는 독신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가구 수로 주택수를 나눈 수치이다. 독신가구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87%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꾸준히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건설교통부, 2001).

이처럼 1인 가구의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주자는 오피스텔처럼 사용하고 소유주는 관리회사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코업(co-up)', 누에고치처럼 필요에 의해 잠만 자는 '코콘 하우스(cocoon house)' 등은 독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유행어로 실제 건설업체에서는 최근 독신가구를 겨냥한 소형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생활가전이 갖춰져 몸만 들어가 살수 있는 임대용 원룸주택이 개발되고, 지하철역 근처의 역세권 소형 원룸 및 대학가 주변이나 부도심에는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의 공급은 실제 독신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분양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독신가구를 위한 주택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독신에 관한 기초조사로서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상 독신가구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연구 대상의 범위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독신가구로 제한한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독신가구는 자신이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공간적으로는 부모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써 미혼이거나 이혼 혹은 사별의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독신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 가족관계, 경제, 주거, 시간 및 여가의 관련분야 6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내용은 그 중 주거부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에 의한 실증적 조사를 한다. 설문지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자는 30, 40대 연령층의 독신자로 한다.

독신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조사도구는 독신의 심리, 가족관계, 경제, 주거, 시간 및 여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부문은 독신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특성, 주택의 형태와 규모 및 주택의 각 공간, 시설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성별과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층화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배포된 설문지 중 총 1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 직업 등이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빈도 (%)	
성 별	남자	78(48.8)
	여자	82(51.3)
	계	160(100.0)
연 령	30-39세	123(76.9)
	40-49세	37(23.1)
	계	160(100.0)
학 력	중졸	0(0)
	고졸	12(7.5)
	대졸	99(61.9)
	대학원 이상	49(30.6)
	계	160(100.0)
결혼 여부	미혼	148(92.5)
	사혼	3(1.9)
	이혼	9(5.6)
	계	160(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3(20.8)
	100-150만원 미만	31(19.5)
	150-200만원 미만	49(30.8)
	200-250만원 미만	21(13.2)
	250-300만원 미만	15(9.4)
	300만원 이상	10(6.3)
	계	160(100.0)
직업	전문직	48(30.0)
	관리직	2(1.3)
	사무직	42(26.3)
	자영업	7(4.4)
	기술직	14(8.8)
	판매, 서비스직	10(6.3)
	무직	13(8.1)
	기타	24(15.0)
	계	160(100.0)

조사대상자는 남성 78명(48.8%), 여성 82명(51.3%)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연령분포는 30대 123명(76.9%), 40대 37명(23.1%)으로 30대가 더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35.02세이다. 전체 응답자의 58.5%가 35세 미만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독신층이 많이 포함되었다. 학력은 대졸 99명(61.9%)과 대학원 이상이 49명(30.6%)로 전체 응답자의 92.5%가 대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층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독신이 148명(92.5%)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사별이 1.9%, 이혼이 5.6%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50-20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20.8%), 100만원-150만원 미만(19.5%), 그리고 250만원이상도 13.2%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4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42명(26.3%)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특히

여성 전문직 종사 비율(39.8%)이 남성(19.8%)에 비해 2배가 넘었으며, 이는 전국 통계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2. 주거계획에 영향을 주는 독신자 생활양식

독신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와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주택에 대한 요구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주거계획에 영향을 미칠 독신자들의 생활양식을 여가활동, 주택내 시간 활용, 소비지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여가활동

독신자들의 생활 특성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가 시간의 확대이다. 여가활동의 빈도를 1점에서 5점으로 구분하여 '안함(1)', '거의 안함(2)', '가끔씩(3)', '자주(4)', '매우 자주(5)'로 응답하게 하였다. 독신자들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이용(평균= 4.11)을 가장 자주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취미활동(평균=2.80), 영화 및 연극관람(평균=2.78), 일이나 친목을 위한 음주(평균=2.77), 파티나 게임(평균=2.56) 등의 여가활동은 가끔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신자들의 여가활동

여가활동	평균
영화 및 연극관람	2.78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이용	4.11
취미활동	2.80
파티나 게임	2.56
일이나 친목을 위한 음주	2.77

분석결과를 예측과는 달리 독신자들의 여가활동이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신자들이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제반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독신자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여가 생활 수용 주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주거내 시간활용

주택내 거주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식사준비 등과 관련된 주거내 시간활용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독신자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는 하루 평균 9.5시간, 주말에는 하루평균 13.1시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인 경우 주택내에서는 취침이 주된 주생활행위일 것으로 예측된다.

식사준비나 세탁, 집안청소 등의 가사노동은 평일인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하루 평균 2.2시간으로

거의 집안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택내 거주시간

문항	평균시간	
	평일	주말이나 휴일
거주하는 시간	9.5	13.1
집안 일하는 시간	1.1	2.2

식사도 집에서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아침인 경우 46명(28.9%), 점심인 경우 12명(7.5%), 저녁인 경우도 42명(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과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 식사습관 등을 고려한다면 독신자의 경우 주택내의 가사노동은 더욱 집약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측되며, 식사와 관련된 부엌공간의 디자인은 일반가구와는 달리 간단하고 편리할수록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독신자들의 식습관

식사	빈도(%)	
	빈도	비율(%)
아침	거름	93(58.5)
	매식	20(12.6)
	직접준비	46(28.9)
점심	거름	1(0.6)
	매식	146(91.8)
	직접준비	12(7.5)
저녁	거름	6(3.8)
	매식	110(69.2)
	직접준비	43(27.0)

3) 소비생활

독신자들의 소비 지출 항목을 6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독신자들이 가장 많은 소비 지출 비목은 외식비(19.4%)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양, 오락, 교제비(16.9%), 의복 및 신발비(15%), 식료품비(13.1%), 교육비(13.1%), 주거비(9.4%)의 순이었다.

독신가구에 있어 주거비 지출은 다른 소비생활과 비교할 때 매우 적으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비 지출 성향은 주택의 유형과 크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독신가구의 경우 동일 평형이라도 주거비 및 관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5> 독신자들의 소비지출 항목

지출비목	빈도	백분율(%)
외식비	31	19.4
교양, 오락, 교제비	27	16.9
의복 및 신발비	24	15.0
식료품비	21	13.1
교육비	21	13.1
주거비	15	9.4

3. 독신가구의 주거선호

독신가구의 주거선호는 주택의 유형과 규모, 공간의 중요도, 주택 내 필요공간, 필요 시설설비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주택의 유형

독신자들이 현재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소형아파트(36.9%)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그 다음은 일반주택(25.0%)의 순이었다. 독신자들이 향후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로 59.9%가 아파트를 선호하며, 그 중 41.4%가 소형 아파트에, 18.5%가 원룸형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표 6> 주택의 유형

주택의 유형	빈도	백분율(%)	
현재	소형아파트	59	36.9
	원룸형아파트	29	18.1
	오피스텔	5	3.1
	원룸형주택	17	10.6
	일반주택	40	25.0
	기타	10	6.3
	소계	160	100.0
미래	소형아파트	65	41.4
	원룸형아파트	29	18.5
	오피스텔	17	10.8
	원룸형주택	13	8.3
	일반주택	20	12.7
	기타	13	8.3
	소계	157	100.0

2) 주택의 규모

현재 독신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를 분양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독신자들은 평균 17.48평의 크기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형별로는 10-20평 미만의 규모에 48.9%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10평 미만의 주택에 15.8%가 거주하였다.

독신자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크기는 평균 25.29평이며, 평형별로는 20-30평 미만을 가장 원하며(40.5%) 그 다음이 10-20평 미만(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규모보다 약 7.8평 큰 규모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택의 규모

주택의 규모	빈도	백분율(%)	
현재	10평 미만	25	15.8
	10-20평 미만	77	48.9
	20-30평 미만	39	24.7
	30-40평 미만	14	8.9
	40평 이상	3	1.9
	소계	158	100.0
미래	10평 미만	2	1.3
	10-20평 미만	48	30.4
	20-30평 미만	64	40.5
	30-40평 미만	32	20.3
	40평 이상	12	7.6
	소계	158	100.0

3) 공간의 중요도

독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차례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결과는 <표 8>과 같다. 1순위인 경우 응답자의 90명인 56.3%가 침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거실은 42명인 26.3%, 욕실은 17명인 10.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인 경우 욕실(34.4%)이, 3순위인 경우도 욕실(31.3%)이 가장 많았으며, 4순위는 부엌(33.8%), 5순위는 수납(47.5%)의 순이었다.

<표 8> 공간의 중요도

공간의 중요도	빈도	백분율(%)	
1순위	침실	90	56.3
	거실	42	26.3
	욕실	17	10.6
2순위	욕실	55	34.4
	거실	41	25.6
	침실	37	23.1
3순위	욕실	50	31.3
	부엌	43	26.9
	거실	26	16.3
4순위	부엌	54	33.8
	수납	43	26.9
	욕실	28	17.5
5순위	수납	76	47.5
	부엌	42	26.3
	거실	24	15.0

독신가구와 일반가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신가구의 경우

개인침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욕실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크다. 거실은 일반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가구와는 달리 주택의 중심이 거실이나 식당이 아니라 침실과 욕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자는 가족들과의 가족 단란이 없으므로 거실의 중요도가 침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신자에게 주택은 완벽한 휴식과 취침을 위한 공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독신자를 위한 주거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공간의 면적비율과 향 등이 기존의 주택평면과는 다른 평면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필요 공간

독신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의 공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구분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1)', '필요하지 않다(2)', '필요하다(3)', '매우 필요하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주택내 필요 공간

공간	필요도(평균)
샤워실	3.54
컴퓨터전용공간	3.22
재택근무공간	3.03
운동공간	3.00
취미공간	2.73
드레스실	2.50
놀이/파티공간	2.36
휴바	2.20

독신자들은 주택 내 샤워실(평균=3.54)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그 외 컴퓨터 전용공간(평균=3.22), 재택근무공간(평균=3.03), 운동공간(평균=3.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샤워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은 욕실공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는 답으로 독신자들에게 휴식은 매우 중요한 주거의 기능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C의 보급확대 정보 네트워크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거주자들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과 같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전용공간, 재택근무공간에 대한 독신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나 놀이 공간보다는 휴식이나 운동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필요시설

독신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의 시설설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구분하여 '전혀 필요

하지 않다(1)', '필요하지 않다(2)', '필요하다(3)', '매우 필요하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부분의 시설설비의 평균 요구도가 3점을 넘어 독신자들의 시설설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평균=3.58)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불박이장(평균=3.29), 자동냉난방 시스템(평균=3.24), 인터넷 TV(평균=3.20), 가전제품 빌트인(평균=3.17), 가사경감형 기기(평균=3.14)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독신자들은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망과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과 기기 등에 특히 요구가 높았다. 이들은 가족단란대신 TV 시청이나 컴퓨터 등을 즐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주택내 필요 시설설비

시설설비	필요도(평균)
초고속 정보통신망	3.58
불박이장	3.29
자동 냉난방 시스템	3.24
인터넷 TV	3.20
가전제품 빌트인	3.17
가사 경감형 기기	3.14
정수 시스템	3.06
자동 공기 청정 시스템	3.04
자동방범 경보 시스템	3.03
위성방송 시스템	3.02
자동 조명 제어기	2.69

6) 주거의 소유 및 공유정도에 관한 의견

독신자들에게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독신가구의 경우 응답자의 119명(74.8%)이 주택을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36명(22.6%)이 전세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미래에는 가족구조 및 가구원수의 감소 등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이 강화되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실제 독신가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택의 소유 및 공유에 대한 의견

공간의 중요도		빈도	백분율(%)
주거의 소유	소유	119	74.8
	전세	36	22.6
	월세	4	2.5
	소계	159	100.0
주거의 공유	공유하길 원한다	42	26.3
	공유하고 싶지 않다	118	73.8
	계	160	100.0

또한 친구나 직장 동료,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등과 주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독신자의 73.8%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주 개념이 강화되면서 호텔식 주거, 오피스텔 등이 직장인,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현재 독신가구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선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거선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주택의 규모, 공간 및 시설설비의 필요도는 남자와 여자, 30대와 40대에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1) 주택의 규모

현재 주택의 크기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성별, 연령에 따른 주택의 규모

주택의 크기	성별		
	남	여	t
현재	15.67	19.24	-2.39*
미래	26.38	24.26	0.71
주택의 크기	연령		
	30대	40대	t
현재	16.02	22.24	-3.07**
미래	24.87	26.68	-0.78

*p<.05 **p<.0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평균 15.67 평 정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19.24평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약 3.5평정도 적은 규모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평균 22.24평으로 30대의 평균 16.02평보다 6.2평정도 넓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30대보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간의 필요도

독신자들이 주택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남성인 경우 컴퓨터 전용공간에 대한 요구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 드레스실에 대한 요구가 남성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가 40대보다 재택근무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표 13 > 성별, 연령에 따른 공간의 필요도

필요공간	성별		
	남	여	t
취미공간	2.73	2.74	-0.06
재택근무공간	3.06	3.00	0.62
컴퓨터 전용공간	3.37	3.07	2.79**
운동공간	2.96	3.04	-0.69
놀이/파티공간	2.37	2.35	0.22
드레스실	2.19	2.79	-4.82***
휴바	2.13	2.27	0.27
샤워실	3.50	3.57	-0.86
필요공간	연령		
	30대	40대	t
취미공간	2.72	2.75	-0.14
재택근무공간	3.08	2.83	2.08*
컴퓨터 전용공간	3.26	3.05	1.46
운동공간	2.98	3.05	-0.65
놀이/파티공간	2.31	2.48	-1.13
드레스실	2.46	2.59	-0.79
휴바	2.25	2.02	1.45
샤워실	3.53	3.54	-0.04

*p<.05 **p<.01 ***p<.001

3) 시설설비의 필요도

독신자들이 주택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설비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든 시설설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30대보다 기본적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자동방법 경보 시스템, 정수 시스템, 자동 조명제어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14> 성별, 연령에 따른 공간의 필요 시설설비

필요시설설비	성별		
	남	여	t
블박이장	3.10	3.47	-3.88***
가전제품빌트인	2.94	3.21	-2.37*
가사경감형 기기	3.09	3.14	0.01
초고속 정보통신망	3.59	3.57	0.25
인터넷 TV	3.21	3.20	0.04
위성방송 시스템	3.12	2.93	1.51
자동 방법 경보 시스템	2.82	3.23	-3.29**
정수시스템	2.87	3.23	-3.28**
자동 조명제어기	2.55	2.81	-2.00*
자동 공기 청정 시스템	2.96	3.14	-1.73
자동 냉난방 시스템	3.17	3.31	-1.44

필요시설설비	연령		
	30대	40대	t
블박이장	3.23	3.47	-2.16*
가전제품빌트인	3.00	3.25	-2.02*
가사경감형 기기	2.98	3.22	-2.19*
초고속 정보통신망	3.60	3.50	0.97
인터넷 TV	3.15	3.36	-1.60
위성방송 시스템	3.00	3.08	-0.60
자동 방법 경보 시스템	2.96	3.25	-2.04*
정수시스템	3.00	3.22	-1.57
자동 조명제어기	2.62	2.88	-1.63
자동 공기 청정 시스템	2.97	3.25	-2.06*
자동 냉난방 시스템	3.17	3.44	-2.60*

*p<.05 **p<.01 ***p<.001

40대는 30대보다 블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가사경감형 기기, 자동방법 경보시스템, 자동공기청정시스템, 자동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좀더 편리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독신가구는 미래주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최근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신가구의 증가 추이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 주택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독신자들은 고학력, 고소득 및 전문직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끊임없는 자기발전, 개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획일화된 주택공간보다는 개성화, 생활의 합리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이 강조된 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독신자 주거의 경우 가족단위나 커뮤니티케어 중심보다는 휴식과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게 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독신자나 직장인들을 위해 계획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되고 있다. 이는 다만 공급과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주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거주자가 소형아파트를 다른 주택유형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독신가구는 결혼이 늦어진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일시적 1인 가구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그룹이 일시적인 주거로서 역할하는 것과 달리 독신가구는 개인의 삶의 안정적인 터전이며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주거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은 주택소유 및 공유의식, 희망하는 주택규모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신가구는 독립적인 침실공간의 확보, 휴식공간으로서의 욕실, 부엌설비, 주차장의 확보, 옥외공간 확보 면에서 주거기능이 미비하고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의 비율은 더 낮고 주거비부담은 더 큰 오피스텔보다 소형아파트를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에 대한 정책결정자나 공급자들은 독신자 주거 계획시 이러한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독신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원룸식 주택이 10평형 중심이었다면, 독신 가구는 25.29평 규모의 공간 집약적인 소형 주택을 원한다. 독신자 주택은 심미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주택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독신자 주택은 소형의 도심 공동주택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주거, 업무, 상업, 교육, 여가 등이 하나의 건물 혹은 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층건물의 개발이 예상된다.

2) 일반 가구는 거실과 부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독신가구는 침실과 욕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독신자 주택은 공간의 중요도가 다르므로 공간의 중요도에 따라 각 공간의 크기, 향 등을 재배치하거나 침실과 욕실 중심의 평면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독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내 공간은 샤워실, 컴퓨터 전용공간, 재택근무공간, 운동공간 등이다.

3) 독신자 주택내 시설설비는 전자 및 정보관련 기기 도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실내환경의 자동 조절, 가사노동의 최소화, 정보화 사회의 각종 혜택이 주택내에서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기반으로 홈쇼핑, 홈뱅킹, 재택근무,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다.

독신자들이 선호하는 주택내 시설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블박이장, 자동냉난방 시스템, 인터넷 TV, 가전제품 빌트인, 가사경감형 기기 등이다.

4) 공간의 필요도에 있어서는 남성인 경우 컴퓨터 전용공간, 여성인 경우 드레스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30대는 40대

<표 15>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

사회문화적 변화와 독신가구의 생활양식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독신가구의 증가 ■ 간단하고 외식위주의 식습관 ■ 주거비/관리비 지출 적고 제한적 	소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아파트(20-30평) ■ 부엌공간의 최소화/ 간단하고 편리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네트워크화 ■ 자동화(OA, FA) ■ 정보관련 서비스 증대 ■ PC 활용 증대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재택교육을 위한 공간 ■ 정보관련 기기, 시설설비 증대 ■ 초고속 정보 통신망 ■ 가정 자동화(HA) ■ 재택근무공간/ 컴퓨터 전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성 추구 ■ 고효율, 신기능화 ■ 고기능 첨단제품의 요구 ■ 가사노동의 최소화 	고기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내 시설설비의 기계화/전자화 ■ 자동냉난방 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 자동 조명 제어기, 자동 방범 경보 시스템 ■ 실내환경자동조절 ■ 가사경감형 기기, 시설 증대 ■ 첨단가전제품의 빌트인(buil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 근무 증가, 전문직의 증가 등 취업구조 및 형태의 변화 ■ 시간의 여유, 여가시간의 확대 ■ 개성추구 ■ 물질적 풍요 	여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 수용 주택 ■ 침실과 욕실 위주의 평면형 ■ 공간의 크기 및 향의 재배치 ■ 운동공간/샤워실 ■ 인터넷 TV/ 위성방송시스템

보다 재택근무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시설설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자동방범 경보 시스템, 정수 시스템, 자동 조명제어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40대는 30대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가사경감형 기기, 자동방범 경보시스템, 자동공기청정시스템, 자동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

이처럼 성별, 연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과 시설설비에 차이가 나는 요소가 있으므로 주택전문가는 주택개발에 앞서 이러한 차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은 소형화, 정보화, 고기능화, 여가화로 제시할 수 있으며 <표 15>와 같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30, 40대에 치우쳐 있었으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40대 비율이 1인 가구 전체 증가율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40대 비율을 높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신의 지속성은 주택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속성을 기준으로 일시적 및 영구적 독신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주거선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독신자의 주거선호 분석을 통한 계획안 제시에 그쳤으나 향후 실제 계획에 필요한 여러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정형화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접 수 일 : 2002년 9월 4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1월 30일

【참 고 문 헌】

박근형(1996).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 13-21.

박충선(2002). 독신가구: 그 실상은 어떠한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1차 춘계학술대회발표집*, 4-5.

윤복자(2000). 가족형성기 가구의 주거입지가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4, 8-17.

하미경(1998). 미래주택의 주거유형과 주택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5), 129-140.

허정무(1999). *미혼독신주의와 노부모세대*. 서울: 협신사.

건설교통부(2001).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2001). *인구동태통계연보*.

Drucker, P. F.(1993). *Managing for the future*. New York: Penguin putnam. Inc.

McAuley, W. J., & Nutty, C. L.(1992). Residential preferences and moving behavior: A famil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85-94.

Naisbitt, J., & Abundance, P.(1996). *Megatrends 2000*.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